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[미국 경제]

- WSJ: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도
- CNBC: 미 중고차 재고 회복되지만 2만불 이하 찾기 힘들어
- Bloomberg: 시카고 연준 총재 “인플레 하락하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”

### [미국 금융]

- Reuters: 달러, 지난 4개월 하락 후에 완화 가능성
- Bloomberg: BofA, “투자자들 기록적인 회사 자본 지출 경쟁 우려”

### [무역전쟁]

- Bloomberg: 미,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변경 시사

### [에너지]

- Bloomberg: 오일가 하락...이란 “미와 핵 회담 건설적”

#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미 취업 전공 1위는 엔지니어링 아니다
- WSJ : 비행기 엔진을 데이터 센터 전력용 천연가스 터빈으로 활용 중
- WSJ : FedEx, 2029 회계연도 매출 증가 목표 세운다

### [미국 경제]

#### WSJ: The Economy May Have Stuck the Soft Landing. Nobody Wants to Jinx It.

#### 미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려도

- 미 경제가 연착륙 신호를 보인다. 인플레도 둔화하고 노동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고, 성장도 견조한 편이다.
- 이른바 핵심 물가도 지난해 1월에 비해 2.5% 상승해 지난 2021년 이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. 실업률도 4.3%로 하락했다.
- 그러나 연준 관리들은 물가가 2%를 계속 웃돌까 봄 우려하고 있다. 이런 측면에서 AI 발전과 강한 소비는 ‘경기에는 좋은 신호’로 보이지만
- 물가를 2%까지 끌어내리려는 연준에게는 ‘과열 신호’가 될 수 있다.

기사

#### CNBC: Used car inventory is improving, but 'affordable under-\$20,000 vehicles are harder to find,' expert says

#### 미 중고차 재고 회복되지만 2만불 이하 찾기 힘들어

-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중고차 가격은 작년 1월보다 2% 하락했다.
- 그러나, 한동안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가격을 보고 놀랄 수 있다는 점이다.
- 관련 데이터 분석 J.D. Power에 따르면, 2025년 기준으로 8년 이하 중고차의 평균 가격은 3만 202달러로, 2020년의 2만 3,668달러보다 무려 27.6%나 올랐다.

- 중고차 물량 중에 2만불 이하 차량의 비중은 지난 2019년에 53%였으나 지난해는 30%로 줄었다.

기사

## Bloomberg: Fed's Goolsbee Sees Several Rate Cuts If Inflation Heads Lower

시카고 연준 총재 “인플레 하락하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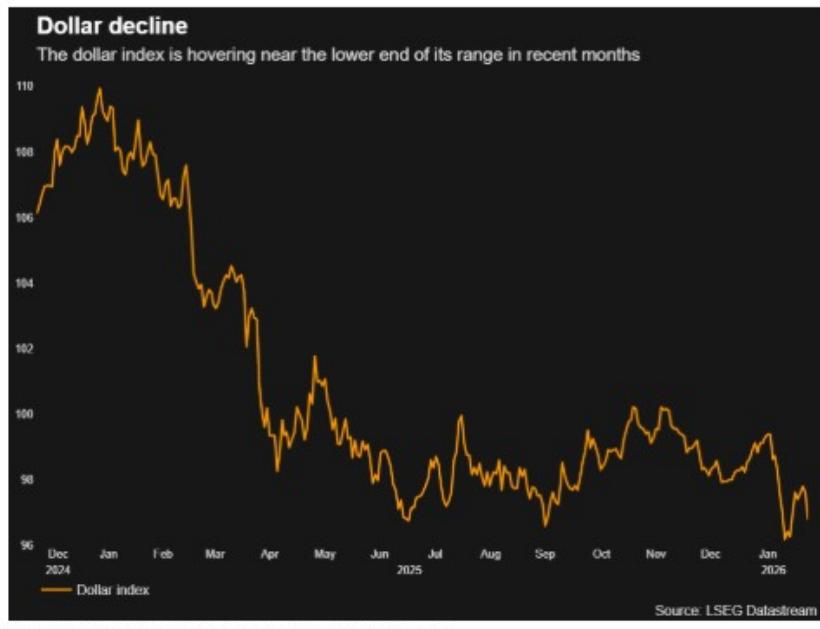
-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“인플레가 연준 목표인 2%로 계속 낮아지면 올해 수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”라고 월요일 밝혔다.
- 물론 그는 서비스 물가가 높다고 경고하면서도 “관세와 연계된 물가가 일회성일 경우 정책 결정자들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유가 있다”고 말했다.
- 즉, 물가 상승이 단기적이고 물가가 2% 쪽으로 내려온다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. 그러나 그는 우선 이 같은 현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.

기사

## [미국 금융]

### Reuters: US dollar may be due for a reprieve after a four-month decline 달러, 지난 4개월 하락 후에 완화 가능성

- 일부 분석가들은 달러가 가까운 시일에 향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특히 미국의 성장세와 향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달러에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.
- 연준 의장 지명자 Kevin Warsh는 달러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.
- 이미 시장에 달러 약세가 반영되어 있으며 미 소비 강세가 대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했다.
- 유로와 영국 파운드화는 특히 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.



기사

## Bloomberg: BofA Survey Shows Investor Worry Over Capex Race at Record High

BofA, “투자자들 기록적인 회사 자본 지출 경쟁 우려”

- Bank of America의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너무 많다고 발표했다.
-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낙관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지만 35%의 응답자들은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20년전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. 그리고 펀드 매니저 들은 기술 주식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.
- 현재 4개의 미국내 가장 큰 기술 회사들이 올해 투자 예상 액수가 6천5백 억달러에 달한다.

기사

### [무역 전쟁]

## Bloomberg: US Open to Changing Steel and Aluminum Tariffs, Greer Says

미,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변경 시사

- 미 무역대표부 미국 무역대표부 Jamieson Greer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경제 단체와 교역 상대국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폭넓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.
- 그는 오늘 화요일 CNBC에서 “기업들을 위해 관세 일부를 준수해야 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. 우리는 기업들이 관세 기준 준수를 위해 인력 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말을 들었다. 이로 인해 회사 운영을 힘들게 하는 것 이 관세 부과 목적이 아니다”라고 말했다
- 이 소식에 따라 뉴욕에서 알루미늄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했다. Alcoa는 최대 7.9% 하락, Kaiser Aluminum은 최대 4.5% 하락, Century Aluminum 는 4.3% 하락 중이다.

- 철강회사들도 하락중인데 Cleveland-Cliffs는 3.1% 하락하며 거래중이다.

기사

## [에너지]

### Bloomberg: Oil Falls After Iran Calls Nuclear Talks With US Constructive 오일가 하락... 이란 “미와 핵 회담 건설적”

- 미국과 이란의 핵무기 회담 관련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밴치마크 가격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.
- 이란 외무장관이 양국간의 회담이 진지하고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후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63달러 아래로 떨어졌다.
- 당초에 이날이 군사 훈련을 위해 일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힌 후 가격이 상승하다 최근 하락하고 있다.
- 오일 가격은 공급망 위축,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올해 거의 10% 상승했다.

기사

## 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### CNBC: The 10 most in-demand bachelor's degrees—No. 1 isn't engineering

미 취업 전공 1위는 엔지니어링 아니다

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에 따르면 가장 핫 한 학부 전공 순위는 아래와 같다. 특히 아래 퍼센티지는 졸업생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회사들 비율이다. 가장 수요가 많은 전공은 금융학.

10. Human Resources: 40%
9. Marketing: 44%
8. Logistics/Supply Chain: 44.7%
7. Information Sciences and Systems: 48%
6. Electrical Engineering: 51.3%
5. Business Administration/Management: 58.7%
4. Accounting: 58.7%
3. Computer Science: 60%
2. Mechanical Engineering: 61.3%
1. Finance: 61.3%

기사

### WSJ: How Jet Engines Are Powering Data Centers 비행기 엔진을 데이터 센터 전력용 천연가스 터빈으로 활용 중

- ‘AI 주도 경쟁에서, 경제의 모든 동력이 경쟁에 동원되고 있는데 항공기 엔진도 예외가 아니다.’
- 항공기 엔진 임대 및 수리 회사 FTI Aviation은 올해 보잉 737에 사용되는 엔진을 개조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할 계획을 발표했다.

- 투자 은행 Jefferies는 이 사업이 연간 약 7억 5천만 달러의 세전·이자·감가 상각 전 이익(EBITDA)을 늘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.
- 이와 유사한 개조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으로는 사모펀드 지원 기업 ProEnergy가 있으며, 이 회사는 보잉 747에 사용되는 동일 엔진을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 터빈을 판매하고 있다. 항공기 스타트업 Boom Supersonic은 지난해 12월 엔진을 개조해 천연가스 터빈으로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다.
- 전력 장비 대기업 GE Vernova, Siemens Energy, Mitsubishi Heavy Industries는 이미 이러한 항공기 엔진을 모델로 한 항공 엔진 기반 터빈을 판매하고 있다. 항공기 엔진 회사인 GE Aerospace, Howmet Aerospace, Woodward도 육상용 항공 기반 터빈이나 부품을 판매한다.

기사

## WSJ: FedEx Targets Higher Revenue in Fiscal 2029 FedEx, 2029 회계연도 매출 증가 목표 세운다

- FedEx는 2029 회계연도 연간 매출을 980억 달러로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는 연평균 4% 누적성장률(CAGR)에 해당한다.
- 이 회사는 고수익 분야에 초점을 맞춰 프리미엄 고객과 특화된 고객층에 집중할 예정이다.
- 이 회사는 2월 11일 기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3분기 조정 주당순이익(EPS)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